

199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비교연구

- 개혁주의 입장으로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최현석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비교연구

- 개혁주의 입장으로 -

指導 김성봉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최현석

최현석의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主審 최정근

副審 김성봉

副審 이은재

副審 이은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년 월

- 목 차 -

제1장. 서론	4
제1절 문제제기	5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2장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6
제1절. 칼빈의 구원론	6
1. 칼빈의 신학사상	6
1) 성경중심의 신학	6
2)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중심의 신학	7
3) 하나님 섭리중심의 신학	8
4) 예정론 중심의 신학	8
① 전적타락	9
② 무조건 선택	9
③ 제한 속죄론	10
④ 불가항력적 은총	10
⑤ 성도의 견인	11
2. 칼빈주의의 구원론	11
1) 하나님의 절대주권	11
2)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12
3) 칭의와 성화	13
① 칭의	13
② 성화	13
제2절. 웨슬레의 구원론	14
1. 웨슬레의 신학사상	14
1) 복음적 신학	14
2) 경험적 신학	15
3) 창의적 종합신학	16
2. 웨슬레신학의 구원론	17
1) 은총안에 있는 인간	17

1)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31
① 선재적 은총	32
② 회개	32
③ 의인화	33
④ 거듭남	33
⑤ 성화	34
⑥ 완전	34
⑦ 영화	35
⑧ 사회적 성화	35
⑨ 우주적 성화	36
2.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의 특징	36

4장.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비교연구

1절.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38
2절. 구원순서의 관점비교	39
1. 칼빈주의신학	41
2. 웨슬레신학	41
3절. 구원순서의 차이점	42
1. 소명과 선재적 은총	42
2. 중생, 믿음, 칭의	43
3. 점진적 성화와 성도의 견인	43
4절. 로마서 8장 28절 - 30절에 대한 구원순서 이해 비교	44
1. 칼빈의 견해	44
1) 예지, 무조건 선택, 예정하시는 하나님	44
2)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45
3) "의롭다 하심"	45
4) "영화롭게 됨"	45
2. 웨슬레의 견해	46

5장. 결 론	49
-------------------	----

참고문헌	52
----------------	----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신학의 진수는 성경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정립을 통하여 교회와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데 있다. 그것은 신학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경의 진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의 생활화를 돕는 인도자이며 성령님의 조력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직신학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구원론은 신론과 인간론, 기독교론과 교회론, 종말론 사이에 있는 각론으로서 결론적이며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즉, 앞서 서술한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을 포괄하여 신앙생활의 결론이며 기독교의 핵심진리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구원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구원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따라서 구원론에 대한 연구는 신학의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룩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두 가지의 조류가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며 기독교회를 이끌어 왔다. 먼저는 칼빈신학을 바탕으로한 장로교회이며, 요한 웨슬레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이다. 이 두 조류는 칼빈과 웨슬레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박형룡과 김균진 이라는 걸출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신학사조와 이단들의 등장은 기독교 2세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던져주었고 혼란을 가져왔다. 계속되는 이단시비와 성도들의 무절제한 신앙의 모습과 방향을 잃은 새처럼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는 모습은 21세기 기독교회의 미래에 어둠의 자리로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회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과정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 연구는

칼빈과 웨슬레라는 걸출한 신학자들의 성경에 입각한 구원순서를 중심으로 구원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위치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구원의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기독교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의 순서를 통해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고, 비교 연구하여 교회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신앙의 여정으로서 구원의 과정을 연구하여 명확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단들의 유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기독교 신학의 양대 조류인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순서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연구방법과 범위는 칼빈과 웨슬레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되 그 후대에 저술된 학자들의 저서와 견해들을 보조자료로 삼을 것이다.

1장에서는 구원의 순서의 중요성과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며,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칼빈과 웨슬레의 입장을, 3장에서는 칼빈주의신학의 구원론과 순서를, 4장에서는 웨슬레신학의 구원론과 순서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고 5장에서는 신자의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구원의 순서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제1절. 칼빈의 구원론

1. 칼빈의 신학사상

1) 성경중심의 신학 (개혁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주의 신학)

개혁교회에 있어서 칼빈주의 신학사상은 개혁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다. 성경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외침아래 개혁사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인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개혁신학사상은 신구약 성서를 신앙과 사고와 행위의 최고규범과 권위가 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개혁신학사상이란 일차적으로 신조(creeds)나 신앙고백(confession)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전통이 물려준 신조나 신앙고백의 타당성을 성경의 빛 앞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성경만이 개혁신학사상의 최고권위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성경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한다.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가 말씀으로써 지도 받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¹⁾

칼빈의 믿음에 관한 지식의 신앙적 규범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그의 신학은 철학적 사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시 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고의 총체이다. 그는 어떤

1)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1995), pp. 42.

권위보다도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1536년의 '제네바 신앙고백'에서 그는 분명한 성경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성서만이 신앙과 종교의 규칙임을 따를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인간의 의견에 의해서 고안된 어떤 다른 것을 섞지 않는다.' 2)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칼빈의 성경관은 개혁사상에 밑바탕을 깔아 주고 있는 것이다. 3)

2. 하나님의 영광중심의 신학

칼빈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The idea of God's glory, la gloire de Dieu)이다. 그는 인간행위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세상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일에 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학이 바로 칼빈의 신학사상이었다.

2)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Westminster, 1965), pp26.

3) 개혁신학에 미친 칼빈의 신학적 영향력은 대부분이나 논제의 방향성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개혁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더 언급하자면, 김영한 교수는 그의 저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인간의 책임성과 창조질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건전한 교의 추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행위에의 적극참여, 연합하고 일치하는 에큐메니컬 정신, 장로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 민주적 교회질서, 말씀선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식, 문화적 변혁사상 등 열한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4) Bengt Hagglund, 박희석, 「History of Theology」, (서울: 성광문화사, 1991), pp. 365

3. 하나님의 섭리중심의 신학

칼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과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God's providence, providentia Dei)의 교리가 있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그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추진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인간의 악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⁵⁾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은 이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또한 그 만물의 주인이 이끄는 데로 피조물이 생성, 변화, 소멸 됨을 수용하는 자세이다.

4. 예정론 중심의 신학

칼빈의 예정론은 흔히 칼빈주의의 '중심교리'로 불려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서의 예정으로 이해되어 졌다. 예정론은 이 세상의 전체 행로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구원이나 저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구원에 관계한 예정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혹은 작정)이라고 부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오셨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조건하에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혹시 영생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은 양자 중 어느 목표인가 도달하도록 창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사람을 가리켜 그가 생명에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라고 말한다.”

5) Ibid, pp. 365.

(C. R, 29, 864 f. Institutes, III, 21, 5).

이것이 칼빈의 이중예정론이다. 칼빈은 인간이 버림을 당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악의 원천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자신만의 비밀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용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림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정하시나, 이 공정성은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예정사상이 인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파괴하기보다는 마땅히 그것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중예정은 어거스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인 것이다. 6)

특별히, 칼빈주의 신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칼빈주의 5대교리이다.

① 전적타락(Total depravity) 또는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이 부패하고 비정상적이고 죄악되다는 것이다. 이 부패는 인간의 육체적 영적,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 죄가 사람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생태적 부패의 결과로 자연인은 아무런 영적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 죄인이 영적으로 파산되어 그의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창 6:5; 8:21; 전 9:3; 렘 17:9; 막 7:21-23; 요 3:19; 롬 8:7-8; 고전 2:14; 엡 4:17-19; 5:8; 딤후 1:15; 마 7:16-18; 12:33; 요 6:44,65; 고전 2:14; 고후 3:5)

② 무조건적 선택(Uniconditional election)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은 죄악되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 오게 된 것이다. 타락된 피조물로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않

6) Ibid, pp. 366-367.

는다. 그러나 진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버려두어 멸망하게 버려두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성을 의심할 권한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에 그러하다. (신 10:14-15; 시33:12; 65:4; 106:5; 학 2:23; 마 11:27; 22:14; 24:22)

③ 제한 속죄론(Limited atonement)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저들에게 미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받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게 되고 모든 죄와 정죄받는 일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죄의 벌은 영원히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완전한 의를 받으며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 이는 행함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그 계획과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인들을 완전구속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신다.

(롬 5:10; 고후 5:18-19; 엡 2:15-16; 골 1:21-22; 마 1:21; 눅 19:10)

④ 불가항력적 은총(Irresistible grace) 또는 성령의 유효한부름 (Efficacious Call of the Spirits)

죄인으로서 죽었던 죄인이 중생으로써 새롭게 되고 신앙과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의 내적 초자연적 소명으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다. 일반적 외적 소명은 이따금 거절 당하여도 이 성령의 내적 특수 조명은 결코 죄인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 이 특수 조명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민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이 선민에게 주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요1:21; 딤후 3:5; 벧전 1:3; 요일 5:4; 신 30:6; 겔 36:26-27; 갈 6:15; 엡2:10)

⑤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증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된다. 증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보장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확실히 불러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아주 잃어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다.

(사 43:1-3; 렘 32:40; 마 18:12-14; 요 3:16; 롬 5:8-10; 고전 1:7-9; 고후 4:14; 엡 1:5; 골 3:3-4)

2. 칼빈주의의 구원론

1)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빈주의의 구원론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총이라는 것이다. 홀(Karl Holl) 과 딜타이(Wilhelm Dilthey)와 뮐러(Karl Muller)는 칼빈신학을 특징짓는 것은 신관에 있어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 힘과 장엄한 주권적 의지의 사상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은 칼빈 신학을 관철하고 있다고 하였다.⁷⁾

칼빈은 ‘섭리 교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세계의 이 혼란한 상태가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소동을 잘 고안된 질서로 조정하심으로 저들을 바른 목적으로 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결론짓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하였다.⁸⁾

7) A. Zahn, Die Studien über J. Calvin, S. 4ff,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84), pp. 72.

8) John Calvin, 김종흠, 신복윤, 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권1항

또한, 구원의 문제에서도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일체를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에 돌리고 있다. 선택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무상의 선한 뜻 외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도 고려될 수 없는” 9)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 외의 다른 것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다.”10)

칼빈주의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사역을 의미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한 무조건적 은혜인 것이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칼빈주의신학에 있어서 예정교리는 중심교리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한 섭리방편으로서 볼 수 있다. 두메룩(Emile Doumergue)은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사상에 논리적으로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았다.” 11)고 말하였다.

9) John Murre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82), pp. 87.

10) Ibid, pp. 88.

11) 박형용, 「칼빈의 예정론」, (서울: 신학지남, 1934, 7), pp. 30

이근삼 박사도 ‘칼빈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어떤 부분이나 활동의 한 부분으로 제한하는 견해는 칼빈주의의 기본원리를 말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 예로는

- ① 선택 또는 예정교리를 기본원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기본원리가 아니고 논리적인 결론이다.
- ② 하나님의 영광도 칼빈주의의 기본원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너무 제한하기에 원리로 보기에 역부족이다.
- ③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책임의 종합적 사상을 칼빈주의의 기본원리로 보는 것은 양자를 동등한 입장에 두는 것이므로 이것은 칼빈주의 정신에 배치된다.

칼빈주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진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정교리가 칼빈의 신학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정사상은 칼빈신학의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에 도달한 논리적 귀결점이었다. 이중예정과 제한적 선택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정가운데 구원에 이를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속해있다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3) 칭의와 성화

① 칭의

칼빈은 칭의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 이후로는 우리 자신만이 의인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신 앞에서 의로 인정된다.” 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의인교리에서 두 가지 큰 점이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이 교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상의 칭의 만이 죄인에게 양심의 평화, 안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12)

② 성화

성화교리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주께 성별 된다” 는 것이다. 참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거나 율법을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는 일이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회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보다 앞서며 기본적인 사상이 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원리로 하여 전 체계를 구성한다. 이 체계는 신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 예술 등 인생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근삼 . 「칼빈, 칼빈주의」, (서울: 엠마오서적, 1991), pp. 82-83.

12) 신복윤, 「칼빈의 칭의관」 pp. 47

칭의는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완전한 것으로 규정되고 그리스도의 주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용납되는 것이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의 계속적인 개혁의 작업이다. 13)

칼빈주의의 구원론적 특징은 인간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인하여 무능력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뜻에 의해서만 인간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구원받을 자의 예정을 발전시켜 한 걸음 더욱 나아가 구원받을 자의 예정과 멸망 받을 자의 예정도 말하는 이중예정론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를 말하면서도 행동주의적 성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예정론보다 성화론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를 강조한다. 성화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말하면, 칼빈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해 섭리론적으로 예정의 바탕위에서 칭의받고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인 것이다.

제2절. 웨슬레의 구원론

1. 웨슬레의 신학사상

1) 복음적인 신학

웨슬레 신학은 개혁자들의 신학이 그랬듯이 복음적이다. 그것은 웨슬레가 당시 영국교회의 인본주의적 신학사상에 대해 루터, 칼빈의 복음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부흥운동의 추진력으로 삼은 사실에서 나타난다. 14) 웨슬레 신학의

13) J . Richard, 이창우역,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협회,1986), pp. 40

세가지 원리는 첫째, 모든 선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며,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모든 능력을 전적 부인하며, 셋째, 인간의 모든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거나 행한 것까지도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체험을 통하여 확신한 것이다. 15)

이런 면에서 웨슬레 신학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동기와 흡사한 점이 있다. 셸이 지적한 대로 웨슬레 운동이 당시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하여 종교 개혁자의 신학을 재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을 가져왔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16) 웨슬레 신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과 복음주의 입장에서 출발한 점에서 볼 때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경험적 신학

일반적으로 웨슬레의 기독교관은 경험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색은 신자의 체험을 긍정한데 있다. 17) 웨슬레는 경험에 호소하는 그의 신학 작성에 있어 모든 사람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그 직능과 권리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계몽주의 사상의 경험적 제1원리를 적용시켰다. 18) 그의 완전교리 역시 경험의 한 호소이다. 웨슬레는 신앙체험을 중요시한 신학자 였다. 웨슬레가 말한 체험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을 다 포함한 반응으로서의 체험을 말한 것이다.

웨슬레는 신학이 하나의 상아탑에서의 논리와 체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신앙생활과 체험으로 옮겨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19) 하퍼는 웨슬레 신

14) G. Cell, 송홍국 역,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p. 15.

15)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p 27

16) 조종남, (87년판 3쇄), pp 32.

17) H. Lindstrom, 전용옥 역, 「웨슬레와 성화」,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pp. 14.

18) G. Cell. pp. 23.

19) 조종남, pp. 271.

학이 체험을 근거로 하므로 상아탑 신학에 결여 되기 쉬운 신빙성 있는 즉 시험을 거치고 그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신학이라 하였다. 20) 따라서 웨슬레의 신학연구 방법은 경험주의이며, 그것은 그의 신학이 경험주의 신학이며, 체험적 신학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창의적 종합 신학

웨슬레 신학은 신약성서에 있는 중요한 요소에서 각 학파의 장점들을 창의적으로 종합한 데 그 특징과 공헌이 있다. 웨슬레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신약성서에 나타난 주요한 요소들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각 전통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시키곤 하였다. 21)

웨슬레는 “성결의 개념”을 로마 카톨릭의 강조에서 가져왔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강조를 채택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와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종합하여 기독교 완전의 성서적 교리를 수립하였다. 22)

다시 말하면, 완전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웨슬레 신학은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받았고 자기부정과 훈련을 통한 완전에의 노력으로 나타나

20) Steve Harper, 신광준역, 「웨슬레의 메시지」, (서울 : 도서출판 웨슬레, 1986), pp. 12.

21) 이와 같은 종합에 대하여 부루워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이 개념(웨슬레의 이해)는 전 세기와 기독교 사상의 각 파에 나타난 위대한 성서적 진리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1) 이 신학은 옛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한 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파악하며 동시에, 어거스틴과 함께 인간의 죄의 깊이를 말하고 있다. (2) 이 신학은 로마 카톨릭과 함께 선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동시에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3) 이 신학은 교회주의자(Churchman)와 더불어 은혜의 수단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또한 동시에 복음주의적인 신비주의자들과 함께 내적 은총의 독특한 역사를 이해하였다. (4) 이 신학은 영국의 신비주의자들의 내적 성결과 기독교의 완전교리를 믿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원리 위에 세움으로써, 그들을 참되 기반 위에 서게 하였다.

조종남, pp. 35.

22) 조종남, pp. 35.

는 로마카톨릭의 강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강조를 보강하고,²³⁾ 동시에 알미니안주의와 실제적인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닌 영국국교회적인 것과 칼빈적이며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난 루터적 특색을 창의적으로 종합하였다. ²⁴⁾

2. 웨슬레신학의 구원론

1) 은총 안에 있는 인간

웨슬레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온 인류도 타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범죄 하였으니, 웨슬레는 아담을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원죄에 관하여” 라는 그의 설교에서 ‘원죄’를 부인하는 자는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라고 주장하였다.²⁵⁾

타락한 자연인은 나면서 부터 그 마음이 부패(innate corruption)되어 있다. 그는 나면서부터 부패된 상태를 악한 뿌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모든 원죄적 죄와 내적인 죄는 악한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²⁶⁾ 웨슬레는 아담의 타락이 전 인류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즉, 아담의 범죄는 인류에게 전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인 이성에 의하여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웨슬레에 의하면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간 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희망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웨슬레는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은총으로만” 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인간의 희망 또는 구원은 홀로

23) 조종남, pp. 17.

24) H. Lindstrom, pp. 17.

25) 조종남. pp. 127.

26) Sermons I, 156 ff. "The Way to the Kingdom"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27)

따라서 죄에 대한 웨슬레의 사상은 죄의 본질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사상에 나타난 죄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것²⁸⁾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은총개념에서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행적 은총과 신인협동설

① 선행적 은총

웨슬레 신학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노력, 반응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선행적 은총과 신인협동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다. 웨슬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관념을 구속론의 입장에서 그의 선행적 은총의 개념과 연합시키고 있다. 29)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념에서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다. 즉,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 예수의 대속(atonement)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 대속의 첫 번째 결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행적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한다.

이 결과로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이거나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웨슬레의 이해에 따르면, 인간은

- 1) 부패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원죄의 죄책에서 해결되어 있으며,
- 2) 자유의지가 부분적이거나 회복되어 있어서
- 3)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역사에 함께 협동할 수 있으므로 자기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27) 조종남, pp. 130.

28) William Cannon, 「The Theology of John Wesley」(New York : Abingdon Codesvury Press, 1946), pp. 248.

29)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신학과 선교 1집, 부천 :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72), pp. 69.

4)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도 다스리는 힘을 활용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30)

웨슬레의 구원론은 칼빈주의와 다른 보편구원이며, 만인구원설(Universalism)과는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론을 넘어선 오직 은총(Sola gratia)이라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31) 즉, 제한속죄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한 속죄의 형벌을 지셨다는 것이다.

② 신인협동설

웨슬레는 구원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호응하며, 함께 일한다는 신인협동설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책임성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즉, 구원의 전 과정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니 받아들임은 인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32)

웨슬레는 구원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나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 구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자기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도 책임 있는 위치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3)

30) 조종남, pp. 133.

31) 조종남, 「알미니우스주의 교회의 신조」, (폴빛목회, 32권, 1983,6), pp. 81.

선행적 은총은 만인구원설이나 칼빈주의의 한계에 빠지지 않으면서 오직 은총이라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행적 은총으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론을 극복했다고 보는 것이다.

32) 송홍국, 「웨슬레 신학과 구원론」, (서울 : 기독교서회, 1975), pp. 84

33) 웨슬레는 성 어거스틴의 '우리 없이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Qui fecit nos sine nobis non salvabit nos sine nobis)는 말을 인용하여 구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웨슬레는 신인협동설을 통해 인간의 책임이 구원의 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정은 칼빈과 구원의 교리에 있어

그러나 웨슬레가 주장하는 신인협동설은 반 펠라기우스주의나 중세기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협동 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절반씩의 협동이 아니라, 십플리(David Schiply)가 말한대로, “인간 의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수동적으로 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에 아무런 이의 없이 협동하는 것이다. 34) 그리고 스타키(L. Starkey)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웨슬레의 입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복음적 협동설(Evangelical Synergism)이라고 지적하였다. 35)

이와같은 웨슬레의 주장은 신인협동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협동에 있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택하는 창의적인 종합을 생각하였고, 주도권은 은총에 두고 인간은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는 것이다.

3) 성화의 단계

웨슬레의 성화론은 그 당시의 여러 학파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종합되어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첫째로, 그 당시의 모라비안파들이 주장하는 바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에 아

주 완전히 성화 되어 더 성장의 여지가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지양하는 개념 곧, 점진적인 성장(gradual advance)의 개념이다. 웨슬레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출생후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후에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웨슬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점진적인 성장의 개념은 순간적인 요소와 종합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의 칼빈주의자의 성화론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서 상이한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34) David Schiply, 「Methodist Arminianism」, pp. 223. 287.

35) Starke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 A Study of Wesleyan Theolog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62), pp. 116f.

셋째로, 웨슬레는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서 순간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성화의 과정에서의 성장은 독특한 것으로,

- 1) 회개와 믿음으로 신생함과 함께 성화가 시작되며(initial sanctification),
- 2) 신자로서의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 곧 성결하여지며,
- 3) 마침내는 영화 하는 순간적인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서의 성화는 종말론적인 목표(teleological aim)를 향하여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36)

웨슬레가 말하는 성화의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① 초기성화 (initial sanctification)

사람이 거듭날 때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웨슬레의 견해인데 이를 흔히 초기의 성화(initial sanctification)이라고 한다. 웨슬레는 신성을 초기 성화라고 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for man)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동시에 사람 안에서 (in man) 역사하신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신생의 교리에서 설명하였다. 즉, 신생은 우리 인간의 속 사람이 변하여 죄인이 성도가 되는 것이다. 37)

② 온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

웨슬레는 점진적인 성화에 순간적인 단계의 성화를 밀착시키는 데는 두 개의 순간적인 체험이 있다고 했다. 하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초기의 성화요,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오는 또 하나의 순간적인 체험 곧 온전한 성화이다. 이 온전한 성화는 신자가 자기의 무능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

36) 조종남, pp. 183-184.

37) Ibid., pp. 129.

로 받은 신앙체험이다. 이 체험을 웨슬레는 “제2의 축복”(Second Blessing), “두번째 변화”(Second Change),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 기독교자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온전한 사랑”, 혹은 “순수한 사랑” 이라고 지칭하였다.

온전한 성화의 체험에 대해 웨슬레는 온전한 성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최종목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도로서 나아가고 전진해 가는데 본질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였다.

4) 기독교자 완전(Christian Perfection)

기독교 완전의 교리를 웨슬레는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했으며, 온전한 성화를 가리켜 “종교의 진수”라고 까지 말했다. 또 말년에 이르러 성결의 은혜를 종종 “기독교자의 완전”이라고 표현했다.³⁸⁾

그는 “기독교자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Purity of intention)이요, 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중략, 그것은 온갖 더러움과 모든 내적, 외적 불결을 탈피하는 마음의 할례다. 중략,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38) “완전”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당시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으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보다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궁극적인 의인과 영화의 조건이 된다.

완전이란? 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②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③ 성신의 열매(갈 5장) ④ 하나님의 형상 즉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의와 진정한 성화가 포함된다. ⑤ 내적, 외적, 의, 이것은 마음의 순결에서 오는 생활의 성결이다. ⑥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 ⑦ 하나님에 대한 인간 자신의 헌신, ⑧ 예수를 통하여 찬미와 감사의 하나님께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속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⑨ 모든 죄에서부터의 구원 등이다.

따라서 웨슬레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내적인 죄를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결이란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독자의 완전은 성별(Full Conseration),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 Cleansing from all sins), 그리고 온전한 사랑(Perfect Love)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웨슬레는 이것을 땅위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완전이라고 주장했다.³⁹⁾

① 동기의 완전과 인간의 제약성

웨슬레에게 있어서의 완전의 개념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는 절대적 완전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⁴⁰⁾이 상대적 의미의 완전은 실수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기의 완전 곧 의도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그들이 지닌 제약성(infirmities)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실수하게 되는데, 이런 연약성에서 기인된 죄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죄라고 하였다.⁴¹⁾

그리고 이러한 제약성에 대하여 “땅 위에 절대적 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완전에는 정도(Perfection of degrees)가 있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여지를 불허하는 완전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⁴²⁾

② 의존적 완전

의존적 완전이란 것은 아무리 성결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기인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대 속의 보혈을 순간순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⁴³⁾ 즉, 의존적인 완전함이란 것은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9) 조종남, pp 188-189.

40) 이성주, 「웨슬레 신학」(서울 : 성광문화사, 1988), pp 221.

41) 조종남, pp. 140.

42) J. Wesley, 「그리스도의 완전」, pp. 23.

43) 조종남, pp. 192.

제3장 .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개혁주의 구원론의 입장은 칼빈주의적 전통에 선 복음주의 노선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곧 칼빈주의신학의 구원론을 의미한다. The ordo salutis(the ways of salvation)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객관적 구속사역이 개개인의 신자들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1절. 칼빈주의신학

1. 칼빈주의신학의 구원순서

칼빈주의신학의 구원순서의 근거는 롬 9:29-30으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사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칼빈주의신학에서 세부적으로 순서를 규정하는데, 예정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 ① 소명, ② 중생, ③ 믿음, ④ 회개, ⑤ 칭의, ⑥ 성화, ⑦ 성도의 견인, ⑧ 영화이다. 44)

44) 제시한 구원의 순서는 칼빈신학자들인 John Murray, Louis Berkhof 등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 외에도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구원의 순서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찰스 하지(Charles Hodge) : 중생 - 소명 - 신앙 - 칭의 - 성화
 ② 헤르만 호크스마(Herman Hoeksema): 중생 - 소명- 신앙 - 개종 - 칭의 - 성화 - 견인 - 영화
 ③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 중생 - 소명 - 칭의 - 신앙 - 성화
 ④ 하지(A. A. Hodge) : 소명 - 중생 - 신앙 - 그리스도와 연합 - 회개 - 칭의 - 양자 - 성화 - 견인
 ⑤ 존 머레이(John Murray) : 소명 - 중생 - 신앙과 회개 - 칭의 - 양자 - 성화 - 견인 - 그리스도와 연합 - 영화

1) 소 명 (Calling)

(고전 1:9; 롬 1:7; 9:23-24; 엡 4:1-4; 뱀전 2:9; 뱀후 1:10)

여기서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심의 개념이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초청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2-24절에 나타나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45)

칼빈도 효력있는 부르심을 가르쳤는데 그는 그것을 “내면으로 향하는 부르심”(inward calling)이라 불렀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실 때에만 말씀으로부터 유익이 있다. 이와 같이 내면으로 향하는 부르심 - 이것만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고 특별한데 - 은 사람들의 외형적 음성과는 구별된다. 46)

2) 중 생 (Regeneration)

(요 1:12-13; 3:1-10; 요일 3:9; 5:1; 5:18)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전적인 변화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에 의해 역사되며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본성의 내면적 새로워짐을 말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열매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일어난다.

45) 효력있는 부르심에 대한 다른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9; 로마서 1:7; 9:23-24; 고린도전서 1:26; 갈라디아서 1:15; 에베소서 4:1-4 등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9에서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도 유효적 부르심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46) Antony A. Hoekema, 류호준 역, 「Saved by Grace」,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p147.

그리고 여기서 중생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행위자시라는 것이다. 즉, 중생은 단일적(monergistic)인 하나님만의 일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신인협력적”(synergistic) 행위가 아니다. 47) 중생은 갑작스러운 변화이며, 근본적인 변화이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은총으로서 중생은 예정,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돌이킴은 중생의 외형적 증거이다. 48)

3) 믿음 (faith)

(롬 10:9; 히 11:1; 뱀전 1:5; 요일 5:13)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반쯤 아는 진리들에 대한 단순한 찬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실하게 앎이며, 의심에 반대하는 견고한 확신이나 신뢰가 그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빈은 믿음에 대한 어떤 공로도 모두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계시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49)

4) 회개 (repentance)

(마 4:17; 행 3:19; 11: 18; 딤후 2:24)

회개는 언제나 믿음(신앙)에 따라서 올뿐 만이 아니라 믿음(신앙)으로부터 나온다. 칼빈은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개는 끊임없이 믿음을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 점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50)

47) Ibid. pp. 168.

48) Ibid. pp. 176.

49) Ibid. pp. 230.

회개란 중생한 사람이 온전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반영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의식적인 돌아섬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5) 칭 의 (justification)

(롬 3:22-28; 갈 2:16; 빌 3:8-9)

칭의는 은혜로우면서도 법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것으로 양도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누릴 권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혹은 “법적인” 행위이지 과정이 아니다. 그리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대속적 사역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성 화 (sanctification)

(벧전 1:15-16; 엡 5:25-26; 롬 6:10; 고전 1:2; 30; 롬 8:13; 12:1-2; 딤후전 1:5; 3:5; 살전 5:23; 고후 7:1;)

칼빈에 의하면, 죄용서와 성화 또는 의인과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일로 얻게되는 최상의 두선물이다. 칼빈은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부

50)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칼빈의 경우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 한다. 그러나 존 머레이는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말할 수 없다고 하며, 회개가 믿음과 구별될 수 있고 또 마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생(거듭남)으로부터 나오며 돌이킴(회심, 개종)의 두 가지 측면들이라는 것이다. 결코, 믿음과 회개를 격리시킬 수 어보다고 주장한다.

여하신 은총과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합일을 말하고,⁵¹⁾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접붙임을 받는 것은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할 뿐아니라 우리 존재를 소유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⁵²⁾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가까운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이다.⁵³⁾

칭의의 상태는 하나님께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청한다. 성화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며 죄인의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선행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작용이다.⁵⁴⁾ 칼빈은 성화에 대해서 순식간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화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7) 견인 (perseverance)

(눅 22:31-32; 요 5:24; 6:39; 10:27-28; 롬 8:38-39; 고전 1:8-9; 딤후 4:18; 히 7:25; 벰전 1:3-5)

견인에 대한 확실한 진술은 돌트신조(1618 -1619)일 것이다. 돌트신조 제3조에서는 신자 자신의 능력에 방임해 둔다면 그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진술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특히 8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논증한다. : “견인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신자가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역사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된다.”⁵⁵⁾

51)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한신대출판부, 1978), pp .93-94.

52) Ibid, pp 97-98.

53) Anthony A. Hoekema. pp. 382-383.

54) L.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pp. 156

즉, 견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8) 영 화 (glorification)

(롬 8:28-30)

영화는 신자들의 몸과 영의 전체에 있어서 궁극적인 마지막 구속이다. 그리고 성화의 마지막 영광의 단계이며, 최종적이고 가장 복된 단계이다.

2. 칼빈주의신학의 구원순서의 특징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순서의 중요한 사실은 소명이나 중생으로 구원순서가 시작된다는 점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면서 믿음(신앙)에 의한 칭의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이 그 시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56)

다시말하면, 개혁과 신학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의 신분 즉 그의 율법에 대한 관계에 의거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적 의의 기초 위에서만 죄인이 능히 죄의 부패하고 파멸하는 영향력에서부터 구출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개혁과 구원론은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사이의 “구속의 언약”(pactum salutis)에서 성립된 신비적 연합에 두고 있는데, 그 효능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57)

구원순서에 대한 개혁신학자들 간에 다른 이견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순서가 과연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55) Ibid, pp. 417.

56) 루이스 뵈콕, 고영민 역, 「뵈콕 조직신학 제5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8), pp. 17.

57) Ibid, pp. 16.

1) 구원순서에 대한 개혁신학자들의 견해

① 루이스 벨콥(Louis Berkhof)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사역이 죄인의 삶과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실현되

어지는 과정이며, 그것은 구원과정의 논리적 순서로, 또한 구 과정의 상호연관 속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구원사역의 적용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 하시는 사역을 기술함에 그 목적이 있다.“ 루이스 벨콥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존 머레이(John Murray)

“구원적용의 다양한 과정이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순서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과 그의 지혜 그리고 은혜에서 제정되어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결정적 이유들이 성경에 있다” (로마서 8:23)

그가 주장하는 구원순서는 소명 - 중생 - 믿음과 회개 - 칭의 - 양자 - 성화 - 견인 - 영화 이다.

③ 벨카우어(G.C.Berkouwer)

성경으로 부터 구원의 고정된 순서를 추출할 수 없으며, 구원의 순서보다는 “구원의 길”(way of salvation)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구원순서를 거부한다.

④ 안토니 후크마(A.A.Hoekema)

구원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로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중생, 믿음, 돌이킴, 새로워짐 등 등의 표현들은 성경속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단계를 가르키기보다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전체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시키는 것이다.

⑥ 리차드 게핀(R.B.Gaffin)

게핀은 구원순서 자체를 거부하고, 구원사(historia)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적인 사건을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으로 본다.

게핀은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부활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한 칭의가 바울 구원론의 핵심적인 동기였다” 고 하면서 구원론의 주제를 구원순서보다는 “구원사”(historia salutis)에 두고 있다. 58)

2절. 웨슬레신학

1.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웨슬레신학은 선행은총론(Preventing Grace)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1)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웨슬레신학은 루터나 칼빈신학의 구원론의 출발인 예정의 은총을 강조하지 않고 선재적은총을 주장한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홀로 구원을

58)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구원순서에 대한 학자들간의 차이점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강조하는 존 머레이와 논리적인 연속성을 가진 칼빈, 바빙크, 호크마, 박형룡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뵈클,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라는 말자체를 부정하는 벨카우거가 있다. 그는 구원의 순서보다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완성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더불어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prevenient grace)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다가올 때 인간이 응답하고 동참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란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구원의 출발(initial salvation)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지만 구원의 완성(final salvation)은 믿음과 선행으로 되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웨슬레신학의 구원론의 특징은 순간적인 구원론으로 이해하지 않고 선재적 은총에서부터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구원의 순례는 선재적 은총에서 영화라는 개인 구원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까지도 포함한다. 59)

① 선재적 은총 (Prevenient grace)

(빌 2:12-13)

선재적 은총은 선행적(先行的) 은총이라고도 한다. 믿음보다 앞서는 은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이성을 자극시키는 성령의 활동적인 선재적 은총으로서 이성과 이 이성의 눈이 열리도록 하는 양심을 선재적 은총으로서 양심을 말한다. 그리고 선재적 은총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60)

② 회개 (Repentance)

(마 4:17; 행 3:19; 11: 18; 딤후 2:24)

여기서 회개는 종교의 현관(porch of religion)이라고 해석하며, 두 종류의 회개를 말한다. 율법적 회개(Legal Repentance)와 복음적 회개(Evangelical Repentance)가 그것이다. 전자는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에 의해 죄를 철저히

59)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성서연구사, 존 웨슬리신학연구소 시리즈 제3권, 1996.), pp. 221-225.

60) 김홍기, pp. 104-119.

깨닫는 것이다. 이 회개는 자연적 인간(natural man)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깨달은 나머지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자기 의를 신뢰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의인화 (Justification)

(벧전 1:15-16; 엡 5:25-26; 롬 6:10; 고전 1:2; 30; 롬 8:13; 12:1-2; 딤후전 1:5)

웨슬레신학의 의인화 사상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sola fide)이 근거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은사이다. 웨슬레는 다음 성경구절을 매우 중요시 했다. 엡 2:8,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또한 웨슬레신학은 이 믿음에 의한 의인화를 현재 얻기에 구원은 현재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거듭남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경험되는 주관적 은총이 의인화는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객관적 은총이라고 구분한다.⁶¹⁾

④ 거듭남(중생) (Regeneration)

(요 1:12-13; 3:1-10; 요일 3:9; 5:1; 5:18)

웨슬레신학에서는 의인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은총을 거듭남(중생)이라고 강조한다. 웨슬리는 의인화와 동시에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이해했다. 순서가 있다면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 곧 사고 속에서만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의인화가 먼저용, 거듭남은 뒤따른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성격에서 구분된다.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in us)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61) Ibid, pp. 125-135.

또한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이다. 성화의 시작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총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의인화와 거듭남) 또한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웨슬레는 강조한다. 62)

⑤ 성 화 (Sanctification)

(벧전 1:15-16; 엡 5:25-26; 롬 6:10; 고전 1:2; 30; 롬 8:13; 12:1-2)

웨슬레신학에서 회개는 종교의 현관(porch)이고, 믿음은 종교의 문(door)이요, 성화는 종교 자체(religion)라고 한다. 성화교리는 웨슬레 신학에서 중심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이다. 성화에 있어서 루터와 다른 점은 신자가 죽기 전에 완전한 의인화와 성화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반해 루터는 죽는 날까지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견해이다.

성화에 대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라고 해석했지만, 웨슬레는 의인화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화는 성령의 은혜라고 주장하였다. 즉,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지만 웨슬레는 복음적 신인협동설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칼빈과 루터와 다른 웨슬레의 성화론을 알 수 있다. 63)

⑥ 완 전 (Perfection)

(요일 3:9; 5:18; 갈 2:20)

완전(Perfection)은 죄 없음의 완전 성결상태(sinlessness)이다. 그러나 완전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성도도 의식적인 죄(voluntary sin)는 범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죄(involuntary sin)는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4) 즉, 완전한 성도라도 구원에 관계없는 육체적 인간적 실수, 견해나 실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무지, 연약성, 그리고 유혹의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62) Ibid, pp. 136-140.

63) Ibid, pp. 149-151.

64) Ibid, pp. 170-172.

그래서 절대적 완전이 아닌 상대적 완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완전하지 못하며, 또한 완전하다는 말인가? 지식에 있어 불완전하며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며 연약성을 떠나 완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에서 벗어 날수가 없기에 상대적 완전이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며 신자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즉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것이고, 악한 생각과 성품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65)

⑦ 영 화 (Glorification)

(눅 16:26; 23:43; 빌 1:23)

지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완전은 상대적이지만, 천상에서 경험되는 영화는 절대적 완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영화는 의식적인 죄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죄 까지도 사함 받는 상태이다. 또한 무지, 실수, 연약함, 유혹에서마저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66)

⑧ 사회적 성화 (Social Sanctification)

(마 25:35-40; 눅 4:18-19; 시 85:10; 례 25장)

웨슬리신학은 경건주의적 요소를 갖고 인간의 타락한 죄악성을 지적하고 개인 영혼의 내세 구원과 개인적 성화를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경건주의적 내세 지향적 천국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기 자유주의에서 나타난 현세적 천국을 실현하는 사회적 성화(Social Sanctification)를 주장한다. 웨슬레는 큰 낙관주의(optimism of grace)로 개인영혼의 구원완성과 함께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서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회년사상이 성화신학을 기초로 해서 해방의 회년사상으로 나타난다.

65) 표준설교 35, 「그리스도인의 완전」, 총서, II, 140-157.

66) 김홍기, pp. 182.

웨슬레는 사회적 성화사상으로서 회년을 말하며,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고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고,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주장한다. 웨슬레의 은총의 낙관주의는 우리의 죄악성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크심을 믿음으로 천국을 지상에서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67)

⑨ 우주적 성화 (Cosmic Sanctification)

(계 21:5; 롬 8:19-22)

웨슬레의 새 창조 신앙은 본래적 창조에로의 회복이다. 본래적 창조에로의 회복은 타락의 역사 현실을 외면하고 일어날 수 없다. 타락한 역사 자체가 성화되어 가는 운동을 통하여 우주 전체가 성화 되어 갈 수 있고 우주전체의 성화운동은 곧 새 창조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 우주적 타락의 제공자가 인간이다. 그리고 우주적 성화의 출발은 타락한 인간의 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웨슬레의 우주적 성화와 우주적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슬레의 구원론은 창조론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도 포함하고 있다. 우주적 역사의 종말은 우주적 구원의 희망으로 재창조된다. 즉, 인간의 정치적 형상을 회복하여 우주만물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으며,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68)

2.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의 특징

웨슬레의 구원론은 타락한 창조의 회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탄식하는 자연과 우주의 새 창조라는 점에서 창조론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현실성에서 출발하여 참 인간성, 곧 의로움과 거룩함의 회복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인간론과 관계되어 있다.

67) 김흥기, pp. 185-210.

68) Ibid, pp. 211-220.

또한 그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고 속죄의 은총에 의해 계속 성화되어 가고 완전의 상태에서도 속죄의 은총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독교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성령은 구원의 완성 주로서 선제적 은총의 사역에서부터 믿음을 창조하며, 거듭나게 하며, 성화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 성령론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웨슬레의 구원론은 실현된 종말론에서부터 새 창조로의 종말론, 그리고 미래적 초월적 종말론까지 관련되어 있다. 69)

웨슬레의 구원의 순서는 그의 구원론이 원죄론을 강조하면서도 선제적 은총을 강조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 곧 인간의 책임성이 복음적 신인협동설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즉흥적으로 주어지고 전가되면서도 점진적으로 우리의 본성까지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은총임을 주장하고, 루터와 칼빈의 의인화 은총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카톨릭적, 영국성공회적 성화를 받아들여 에큐메니칼하게 종합하였다. 그리고 은총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지상에서의 완전한 성화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구원론은 성화중심의 구원론이다. 웨슬레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인 응답행위 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더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선행은총에서 잘 나타난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종일관함을 구원순서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웨슬레가 말하는 구원에서의 인간의 응답적 측면은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지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구원의 행위나 공로로 볼 수 없다.

웨슬레는 이 완전 성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목표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우주적 성화는 독특한 교리이다.

69) Ibid, pp. 221-222.

제4장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신학의구원순서 비교연구

1절.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순서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인 칼빈주의신학에서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출발점이 예정의 은총을 밑바탕에 깔고 소명과 중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웨슬레신학은 예정의 은총을 강조하지 않고 선재적 은총을 강조한다. 즉,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칼빈주의신학의 구원순서

- ① 소명, ② 중생, ③ 믿음, ④ 회개, ⑤ 칭의, ⑥ 성화, ⑦ 성도의 견인,
- ⑧ 영화.

칼빈주의신학의 구원순서는 이중예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중생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가며, 하나님의 강권으로 견인되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칼빈신학의 구원의 순서는 순간적인 것으로서 논리적인 순서이다. 중생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칭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내리시는 법정적 선언이다.

칼빈주의신학에서의 중심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주권적 역사의 방편로서의 예정론이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할 자와 버려둘 자에 대한 예정을 이중예정이라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맥락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칼빈주의신학에서의 구원순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며, 순간적이며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시간적 단계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의한 단계임을 말하는 것이다.

●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

- ① 선제적 은총 ② 회개 ③ 의인화 ④ 거듭남(중생) ⑤ 성화 ⑥ 완전
⑦ 영화 ⑧ 사회적 성화 ⑨ 우주적 성화 70)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인해 은총을 의지하여 회심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결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성화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신자의 완전의 단계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절. 구원순서의 관점비교

칼빈주의신학과 웨슬레안신학의 나뉘는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의 이 중 예정론 반대에서 시작되었다.⁷¹⁾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벨직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를 그들이 작성제출한 교리대로 변경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글들이 반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과, 무조건 선택, 또는 예정과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인내교리 였다.

웨슬레는 알미니우스주의 입장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고 선제적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 웨슬레신학은 다양한 신학적 교리를 종합 채택하고 있다.

70) 김홍기, pp. 226-227.

71) 칼빈주의 5대교리와 알미니우스의 5대교리가 발생한 기원은 화란 신학교 교수 제임스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가 죽은 지 일 년째인 1610년에 그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에 기초하여 신앙5개 조항을 작성하고,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화란정부에 항의(Remonstrance)형식으로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은 벨직고백(Belgic Confession of Faith)과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Heidelberg Catechism) 를 자신들이 제출한 교리대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에 반대한 신앙고백서와 문답서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 무조건 선택 또는 예정,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인내의 교리들이 있었다.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서울: 엠마오서적. 1991). pp. 85 .

루터신학에서는 의인화와 십자가 신학을, 칼빈의 율법의 제 3의 용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셀(George Cell)은 칼빈의 원죄론과 신앙의 의인화와 성화에 치중하여 영국 성공회나 알미니우스주의의 신인협동설을 거부하고 칼빈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다음은 두 신학의 신학적 뼈대를 정리한 것이다.

칼 빈 주 의 5 대 교리

1. 전적타락

인간은 선행을 행할 능력과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수한 자비에 의해 선택하였다.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이다.

제한 속죄론(Limited atonment)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만을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총(Irresistible grace)

구원의 은총은 거부할 수가 없다. 강권적으로 다가오는 능력은 받아들여야 한다.

알미니우스주의 5 대 교리

1.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무능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선제적 은총에 의해 양심과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

조건적 선택(Conditional election)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보여진 신앙과 불 신앙에 따라 조건되어진다. 믿으면 선택받고 구원받으며, 안 믿으면 전죄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만인속죄론(Universal atonment)

그리스도는 만인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까닭에 만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그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그 은혜와 축복을 즐기는 것이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 성령의 영향으로 보편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에 의하여 은혜를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제적 은총의 자극에 의해 회복된 자유의지가 효과적인 은총과 협동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은총
(Perseveranceofthesaints)
선택된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은혜의 상
태로 지켜진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
지막 구원으로 확증되어 있다.

성령의 은혜가 악을 정복하는 지속적 승
리를 위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자유의지가 두렵고 떨림으
로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
심함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칼빈주의신학

칼빈주의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으로 형성된 것에 비해 웨슬레 신학은 인간의 협력을 중심한 구원론을 형성하였다.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에 있으므로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 은총을 적극 긍정하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구원론 자체가 예정론과 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원순서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이다.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는 동시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인 이중예정에 의한 선택에서 확증되었으며, 선택의 개념에서 모든 구원순서가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다.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도 택하시고 칭의된 신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이다.

2. 웨슬레신학

웨슬레신학은 18세기의 인간이성 강조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능력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 영국인의 종교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이신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극도로 부패한 도덕상태, 칭의 얻는 믿음을 실제적 행위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로 보는 영국교회의 변질된 신학과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구원을 강조하

였다.

그리고 초기적 성화와 온전한 성화를 주장하며, 신자가 완전히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지상에서 낙원을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웨슬레신학은 또한 사회적이고 우주적이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웨슬레는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간의 편에서의 순종과 헌신으로서의 응답에 의한 시간적 구원순서를 전개한 것이다. 또 웨슬레는 칭의와 특별히 성화를 강조하는데 그의 죄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죄를 원죄와 원죄에 의한 특수한 죄로 보고 구원은 죄문제 해결에 있으므로, 칭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 성화과정과 완전성화에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려는 실제적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그의 구원순서에서 드러난다.

반면, 칼빈은 예정론 사상으로 구원순서 어떤 인간의 의지적 응답에 의한 하나님과의 협력도 철저히 배제시킨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인협력은 있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다.

3절. 구원순서의 차이점

1. 소명과 선계적 은총

칼빈주의신학은 소명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신자를 부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정되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웨슬레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이후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기 이전부

터 내리시는 선재적 은총이다. 즉,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베푸셔서 죄인은 누구나 응답할 능력을 부분적이거나 회복하여 의지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2. 중생, 믿음, 칭의

칼빈주의신학은 예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시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또한 제한속죄로 인한 선택한 자들을 향한 절대적 은총인 것이다.

웨슬레신학은 선재적 은총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방향전환의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얻어 의롭다 함을 받고 내적인 참 변화인 중생을 하게 된다. 즉, 회개후 칭의인 것이다.

칼빈의 칭의관과 웨슬레의 칭의관은 서로 일치한다. 웨슬레가 칭의를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지난 죄를 용서하시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칼빈과 웨슬레의 사상에 있어서 똑같이 칭의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칭의에 대해서도 칼빈의 칭의는 선택된 자들에게 한정된 은총을 말하지만, 웨슬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3. 점진적 성화와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는 칭의된 신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잃지 않으며, 성령의 돌보시는 은혜로 궁극적 구원을 얻도록 나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과 죄와 계속적인 영적투쟁을 하며 성화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웨슬레신학은 칭의이후 신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면서 성령의 증거를 얻어 구원의 확신을 하며, 내면적인 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

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게되는 것이다.

4절. 로마서 8장 29절 - 30절에 대한 구원순서 비교 72)

1. 칼빈의 견해

칼빈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절대적인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밝히고, 영원하신 경륜에 의해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서 8장28-30절과 9장은 에베소서 1:3-14과 더불어 예정론의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다.

· 로마서 8장29절-30절의 구원의 순서

예지 → 예정 → 부르심 → 의인 → 영화

선택할 이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며, 의인이라 칭하시고, 영화로 이끄시는 단계를보여준다.

1) 예지, 무조건적 선택, 예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29절)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순복케하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선택의 바로 그 순서에 의해서 보여

72) 칼빈. 신복훈, 이종성, 한철하 감수 . 「칼빈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pp. 264-270.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필연성을 이전에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선택 - 우리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힘입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 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 우리는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 언급해 놓은 하나님의 예지는, 어떤 미숙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미리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해 오신 수양을 의미한다.

2)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낮아지심을 본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가능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소명, 칭의,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그것들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뜻에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게하는 자들을 그가 부르시고 동시에 의롭다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낮아짐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셨다.

3)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란, 신자가 부르심을 받는 시간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공로없이 의의 전가의 뜻으로 사용.

4) “영화롭게 됨”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장차 ‘영화롭게 됨’으로 해서 그들은 고통과 치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영생의 기업을 물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광도 보증된다.

로마서 8장 29절-30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나타난 구원의 순서는 예지와 예정은 역사 이전 영원하신 경륜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현재의 조그만 고통에 낙심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제시하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중생, 회심, 신앙, 성화, 견인의 요소들이 없었지만 나타나 있지만, 전체적 흐름과 방향성을 볼 때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제시 하였으므로 성도가 경험하게되는 반응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이며 구원사적인 면에서 구원의 예정교리에 대한 분명한 구절임을 알 수 있다.

2. 웨슬레의 견해

웨슬레는 구원의 순서를 다양하게 말하였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의 전도 활동의 중간기이며, 사상의 가장 원숙기였던 1765년에 발표한 '성서적 구원의 방법'이란 설교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① 선재은혜의 역사, ② 칭의 전의 회개, ③ 칭의와 죄의 용서, ④ 신성 혹은 중생, ⑤ 칭의 후의 회개와 점진적 성화, ⑥ 완전성화이다. 73)

로마서 8장 29절 - 30절에 대한 웨슬레의 신약주해 설교인 '예정에 관하여'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순서를 보여 준다.

· 하나님의 미리아심 → 예정 → 부르심 → 의롭게 하심 → 영화롭게 하심.

73) 송홍국, 「웨슬레신학과 구원론」, (서울:기독교서회 1975. pp. 97.

로마서 8장 29절 - 30절의 구원순서 상으로 비교하면, 칼빈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나타난 주요개념들에 대한 이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계된 칼빈의 일반예정론을 반대하여 선택된 자들만의 제한 속죄가 아니라 만인속죄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웨슬레는 구원순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여 애매한 점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서적 구원방법'에 대한 설교를 들 수 있다. 웨슬레의 구원의 순서들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구원은 죄의 회개와 믿음을 통한 칭의와 신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인간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어 구원에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도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웨슬레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 하였다. 이것은 인간 심령 깊은 곳에 자리잡은 하나님께 대한 향수, 순간적으로나마 비쳐지는 하늘의 섬광, 또는 죄책감 등이다.

웨슬레는 “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구원의 자율적 성취’ 라는 설교문에서 밝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거점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회개인데 이것은 죄인이 어떤 시기에 자신의 추한 모습과 죄과를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 밖에 받을 것이 없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칭의와 죄의 용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귀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과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인간의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기전에 참된회개와 함께 나 자신의 의를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한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함께 우리는 신생을 경험한다.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개선으로 객관적 사실이요, 중생은 인간이 죄의 세력에서 놓임받아 새로운 마음을 받는 내적 변화로서 주관적 사실이다. 이 두가지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요, 중생이 거기에 따른다.

그러나 웨슬레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순간 새로움을 얻고 씻음을 받고 정화되고 성화되었을지라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씻음을 받고, 정화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육 즉, 악한 성품이 비록 정복되었다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우리가 점차로 성화되면, 우리는 완전성화에 이르게 된다. 웨슬레는 이 성화, 완전성화인 기독교자의 완전을 천사와 같은 절대적 완전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우리의 전 생활이 이 순결한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리하여 완전성화에 이른 자는 육체의 생명의 종식과 함께 영화된다는 것이다.

제5장 . 결 론

지금까지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이라는 양대신학의 산맥을 살펴보았다.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안에서 강력한 선택으로 인한 예정의 바탕 위에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력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어 칭의 받고 성화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는 이중예정론을 확립하여 인간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주장한다.

웨슬레신학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헌신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과 협력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인간의 책임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해서만 회복된 자유의지로 순종과 헌신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또 다른 차이점은 구원순서에 있어서 칼빈은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의 적용을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고 있지만, 웨슬레신학에서는 구원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으로 완전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우주적 성화 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차이점은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인한 이중예정, 곧 선택된 자들을 향한 출발로서 인간의 전적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웨슬레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인정하고 믿으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신자의 신앙고백 즉, 시인이라는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이며 칼빈신학과 극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신자가 이 땅에서 완전을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타락한 인간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성화를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웨슬레신학의 목적이 완전성화와 신자의 완전에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양대신학인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의 완성에 있음을 인지하는 바이다. 그 구원의 완성의 여정이 곧 구원의 순서이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신학을 비교해 볼 때, 칼빈신학은 칼빈이 살아있을 때 정립되고 발전되어진 신학이나, 웨슬레신학은 웨슬레가 죽은 후에 그의 설교들과 사상들을 모아서 신학으로 정립한 것을 생각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강조하면서 신인협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모호하다. 구원을 이루는데 신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인간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웨슬레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구원의 근거인 것을 주장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신자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신자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인데, 칼빈신학에서는 칭의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칭함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나 웨슬레신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신학의 인간의 전적부패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칼빈신학에 근간을 이룬 개혁주의 신학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으로서 웨슬레신학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웨슬레신학이 인간의 책임성과 성화를 통한 완전을 이룰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그래서 다른 신학들에서 종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신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거나 벗어나 모호하게 전이된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칼빈주의신학의 근간으로 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웨슬레신학의 구원순서가 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의 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는 동의하나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인 예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지상에서 인간의 완전을 이룰 수있다는 교리 역시, 인간의 전적부패를 무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일부 교리들은 칼빈주의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성경주의에 입각하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참고문헌

김영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1965.

Bengt Hagglund, 박희석, 「역사신학」, 성광문화사, 1991.

A. Zahn, Die Studien uber J. Calvin,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984.

John Calvin, 김중흠, 신복윤,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 생명의 말씀사, 1989.

John Murre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예수교 문서선교회, 1982.

박형용, 「칼빈의 예정론」, 신학지남, 1934.

신복윤, 「칼빈의 칭의관」,

J. Richard, 이창우 역, 「칼빈의 영성」, 기독교문화협회, 1986.

G. Cell, 송홍국 역,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조종남, 「요한웨슬레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Steve Harper, 신광준 역, 「웨슬레의 멧세지」, 1986.

Sermons I, 156 ff. 「The Way to the Kingdom」,

William Canon, 「The Theology of John Wesley」, Abingdon Codesvury Press, 1946.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72.

조종남, 「알미니우스주의 교회의 신조」, 풀빛목회, 1983.

송홍국, 「웨슬레신학과 구원론」, 기독교서회, 1975.

Starke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 A Study of Wesleyan Theology」,
Abingdon Press, 1962.

이성주, 「웨슬레 신학」, 성광문화사, 1988.

J. Wesley, 「그리스도의 완전」.

안토니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신대출판부, 1978.

루이스벨콕, 고영민 역, 「벨콕조직신학 제5권」, 시독교문사, 1998.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성서연구사. 1996.

표준설교 35, 「그리스도의 완전」, 총서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박형룡, 「교의신학(구원론)」, 은성문화사. 1972.

라보도, 김달생, 「바른신학」, 바른신앙사, 1988.

이윤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원론」, 성광문화사, 1992.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삼영서관. 1987.

조석만, 「조직신학」,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5.

밀드레드 와인쿱, 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생명의 말씀사, 1987.

루이스빨콕, 신복윤 역, 「기독교교리사」, 성광문화사, 1996.

폴 A.믹키, 라영복역, 「웨슬레 신학의 요점」,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루이스 빨콕,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성광문화사, 1990.

벵트헤그룬트,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벵트헤그룬트, 박희석 역, 「신학사」, 성광문화사, 1991.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준, 「존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1997.